



Monthly Customs Newsletter



【 대표관세사 인사말 】

지친 일상에 행복했던 추억은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 어린 시절 사진첩을 뒤적거리다 발견한 꼬맹이 시절 나의 모습은 “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 사랑하는 이와 힘겨운 시간에 꺼내본 초창기 사진들에서 발견한 행복한 미소는 “아직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진첩을 꺼내 보십니까?

누군가는 과거를 향해 달리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라 말할지도 모르나 과거가 존재하기에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가 내년을 위해 힘을 실어주는 기억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해외 직구족, 1년에 87만원 쓴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족은 연평균 87만 4,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년간 해외 직접구매나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쇼핑을 해봤다는 해외쇼핑족 700명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 해외쇼핑 실태조사'에서, 해외 직구를 경험한 소비자(402명)의 1인당 연평균 소비금액은 87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 중 현지 백화점, 아울렛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해외 오프라인 쇼핑족(548명)은 1인당 96만 5,000원을 해마다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해외여행 확대와 해외 직구 열풍으로 해외쇼핑 지출액이 급증했다며, 절대적인 금액뿐 아니라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쇼핑족은 전체 쇼핑지출액의 17.6%를 해외 현지매장이나 온라인 직구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해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변화에서도 전체 해외쇼핑족의 65.6%가 해외쇼핑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7.3%에 그쳤다.

해외쇼핑 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은 '직구 사이트(54.5%)'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해외 종합 온라인몰(25.6%)', '해외브랜드 자체 온라인몰(10.9%)',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7.2%)'의 이용도 활발했다.

해외쇼핑 시 주로 구입하는 상품은 남성은 '의류(26.1%)', '시계·선글라스 등 액세서리(19.6%)', '화장품(13.9%)', '가방·지갑(12.1%)', '가구·전자제품·서적(12.1%)' 순이었고, 여성은 '화장품(26.0%)', '가방·지갑(16.4%)', '시계·선글라스 등 액세서리(15.5%)', '의류(13.1%)', '건강식품(11.7%)' 등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58.7%)',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24.1%)', '다양한 상품 종류(12.4%)' 등을 꼽았다. 국내쇼핑과 해외쇼핑의 만족도를 비교한 물음에는 가격과 상품종류 항목에서는 해외가 낫다는 의견이 각각 78.3%, 60.0%로 더 많았고, 프로모션과 품질은 국내가 더 낫다는 의견이 53.9%, 47.3%로 해외가 낫다는 의견을 앞섰다. 특히 A/S와 관련한 서비스 항목은 국내가 낫다는 의견이 87.1%로 압도적이었다.

해외쇼핑 시 겪은 어려움으로는 '교환·환불·A/S의 까다로움(80.1%)'이 가장 많았고, '긴 배송기간(50.3%)', '비싼 배송료(40.1%)', '언어적인 어려움(35.9%)', '정품확인 어려움(34.0%)', '세관등록의 번거로움(32.7%)' 등의 불편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김경중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해외 직구 열풍과 해외관광 활성화로 해외쇼핑이 단발성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구매행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 유통업체는 해외로 향하는 국내 소비자를 잡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동향 】

▶ 통관 거부, 미리 막을 수 있다

힘들게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상품을 운송했는데, 통관을 거부하면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비용 손해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재수출이 어려워진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관 거부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사례의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최근 각국의 경쟁적인 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의 경우 WTO TBT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 건수가 20년 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으나 10년 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즉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준비에 더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통관이 거부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통관 거부는 규정성분 초과,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 위반, 필수 제출서류 미비, 제조·품질관리기준 미흡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각 국가 및 품목의 기준도 달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통관 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 거부사례 약 5만 건을 기간·업종·품목별로 분류하고, 각 거부사례에 대해 1:1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사전에 자사의 품목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무역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 서비스를 구축해 업체가 수출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관 거부사례 DB는 올 11월 말 EU·일본의 사례를 시작으로 12월 말에는 미국·중국 사례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내년에는 ASEAN까지 제공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 품목분류 】

▶ 석촌 호수 위의 대형 오리

우리나라 최고층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잠실 석촌 호수 위에 대형오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TV와 신문에 소개됐다. 보도에서는 대형오리가 석촌 호수 물 위에 앉았다기보다는 설치됐다 고도 하고 물 위의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니 석촌 호수의 오리는 진짜가 아니고 고무제의 인조물인 것이다.

이 '러버덕'은 높이가 32m, 무게가 600kg으로 엄청 큰 것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고무로 만든 오리다. 네덜란드 설치 예술가 플로텐테인 호프만이 2007년에 시작한 공공예술품이다. 거대 오리 '러버덕'은 프랑스 생나제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로, 홍콩 등 14개 도시를 거쳐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추가적인 것 없이 해당 도시에 띄워 놓기만 한 작품이지만 이 거대 오리 '러버덕'을 만나기 위해 홍콩에서는 30일간 800만명이 모여들었고, 타이완 지룽에서는 50만명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설치물이다. 네덜란드 설치 예술가 플로텐테인 호프만은 "'러버덕'은 국경도, 경계도, 차별도,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친절한 '러버덕'은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에 안정을 풀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이러한 종류의 설치물은 제9508호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에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여행장·순회 서커스·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예 :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며, 이어서 "(1) 각종의 회전목마, (2) "Dodge'em" car 설비, (3) Water chutes, (4) 소형 유람철도와 활주대, (5) 그네형의 보트, (6) 표적용구와 coconut shies, (7) 미로장치, (8) 기형(奇形)의 쇼우(freak shows)"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석촌호수 러버덕>



[FTA 뉴스]

▶ **한·중 FTA 협상, '사실상 타결'**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 기술적인 사안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 FTA로 對중 수출 시 연간 87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며, 對중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를 모두 철폐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과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 생활 가전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특혜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더해 對중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종 단계의 한·중 FTA를 달성하면,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이 54억 4,000만 달러(약 6조 원)에 달해 한·미 FTA 9억 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 13억 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투자 모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시작해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폭발하듯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어 앞으로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해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對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일정 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 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농수산업 분야와 관련해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뛰어오르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를 전망이다.



[FTA 뉴스]

▶ 中 바이어 83%, “한·중 FTA 발효 후 對한 수입 확대할 것”

중국 바이어 83%가 한·중 FTA가 발효되면 對한 수입을 확대하거나 수입선을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중국 전역 바이어 238개社를 설문조사해 나온 ‘한·중 FTA 발효 후 對한 수입 확대 전망’ 보고서를 11월 11일 발표했다.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바이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중인 바이어 193개社 중 172개社가 對한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한국產 수입실적이 없는 바이어 45개社 중 26개社가 수입의사를 보여 신규 바이어 창출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개발을 통해 한·중 FTA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바이어가 밝힌 수입 확대 이유는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產 제품의 가격 인하’가 가장 많았고,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 ‘한국產 제품의 인지도 상승’ 순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입품목에 관계없이 한·중 FTA 체결 이후 유망품목에 대한 질문에 화장품이 가장 높게 꼽았고, 생활용품, 가공식품, 전자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인하 효과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3% 수준인 對중 소비재 수출 비중이 앞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OTRA 오영호 사장은 “최근 對중 수출부진과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 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단 기간 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이어지도록 FTA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종별 진출 전략과 세부 유망품목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 내수시장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폭넓은 기업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FTA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법률적 검토와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FTA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다. 정부는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5개월 동안 아홉 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벌였으며, 실무 협의를 거쳐 두 나라가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1월 15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이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상호보완의 무역 구조여서 이번 FTA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구매력이 높은 중견 선진국이지만,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은 수입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무엇보다 뉴질랜드가 그동안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FTA를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뿐 아니라 농림수산물 분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정부는 뉴질랜드가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이를 대신해 ‘인력이동’과 ‘협력’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이익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전 품목을, 우리는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뉴질랜드는 관세를 수입액 기준으로 92%는 즉시, 7년 내 전 품목을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15년 내 96.4%를 철폐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관세 5~12.5%인 타이어는 즉시 관세철폐, 5%인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3년 내 관세를 철폐해 뉴질랜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계·전자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은 물론, 농기계·농부자재·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소형잡화 등도 뉴질랜드시장 진출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수산물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쌀과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 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 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기초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하는 한편, 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 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는데, 뉴질랜드는 이미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 심사 기준금액을 2,000만 NZD(뉴질랜드달러)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000만 NZD로 상향했다.



[FTA 뉴스]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서비스·투자 분야 경제 협력 기대

협상 개시 5년 만에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됨에 따라 서비스·투자 분야의 활발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월 15일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와의 FTA로 상품 분야 수출 확대뿐 아니라 농식품, IT, 인프라 등의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규모(1,816억 달러)가 크지 않고 관세 수준이 높지 않아 FTA에 따른 수출 효과는 많지 않지만, 그간 서비스·투자 분야의 성공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경제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제주도의 골드키위 재배, 프리미엄 산양분유 생산 등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선진농업 기술 습득 및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ICT,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은 뉴질랜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와의 FTA로 이 같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교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했다. 뉴질랜드는 1차 상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일부 공산품의 FTA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내 수입이 늘어난 공작기계, 지게차, 냉장고 등은 5% 관세 철폐 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품목이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미국 등이 뉴질랜드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뉴질랜드 FTA의 빠른 비준 및 발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EO 뉴스]

▶ **AEO 기업, 통관 시 세관장 요건확인 생략... 사후 관리방식 도입**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하되,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각종 수출입 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했다. 이에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 등 5개 품목을 수입할 때 최고 충전압력이 1MPa 이상(액화가스는 0.2MPa 이상)인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관규제를 이원화해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한편 지금까지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형식적 요건(서류)을 갖췄는지만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를 펼쳐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요건확인 품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건확인 대상 지정 이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